

『차크라삼바라탄트라』 (*Cakrasaṃvaratantra*)의 성립 연구 - 경전의 시작에 대한 초기 주석가들의 주해를 중심으로

방정란

대정대학교 종합불교연구소 연구원
junglan.bang@gmail.com

- I. 『차크라삼바라탄트라』 (*Cakrasaṃvaratantra*)와 주석서
II. 경전의 시작, *evam mayā śrutam*에서
*athātaḥ*로
III. 『차크라삼바라탄트라』 (*Cakrasaṃvaratantra*)와 초기 주석가들의 연대

요약문

인도 밀교 전통 가운데 삼바라(Saṃvara, 혹은 Śaṃvara) 전통은 분노존의 형태인 차크라삼바라(Cakrasaṃvara)로 화한 헤루카(Heruka)를 주존으로 삼는다. 이 전통에 속한 경전들 가운데 가장 초기에 성립된 핵심 경전인 *Cakrasaṃvaratantra*(이후 CaSa)는 요기니탄트라(Yoginītantra) 계열의 경전이다. CaSa를 필두로 삼바라 경전군에는 열두 개 이상의 탄트라가 현재까지 전해지며, 그 영향력은 인도를 넘어 네팔, 티벳은 물론, 몽골 등지로 뻗어나가 현재까지도 살아 있는 전통으로서 수행되어 오고 있다. CaSa라는 밀교 경전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가탄트라에서 요기니탄트라로의 전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밀교 경전인 *Sarvabuddhasamāyogaḍākinījālasaṃvara*(이

후 SaBuSa)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aBuSa와 CaSa의 시작 계승들부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유사 구절의 분석을 통해 SaBuSa에서 CaSa로 이행되는 밀교 경전의 발전 및 문헌 개정 과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CaSa의 주석 가운데 산스크리트 원문이 전해지는 초기 주석들인 Jayabhadra의 *Pañjikā*, Bhavabhāṭṭa의 *Vivṛti*, 그리고 Kambala의 *Sādhanaidhi*의 주해를 중심으로 CaSa라는 경전 성립의 층위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문헌들은 인도 밀교사에서 CaSa가 지니는 독특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원문의 전체 편집은 물론 현대어 번역도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교정, 출판되지 않았던 원문과 현대어 초역을 함께 시도하여 CaSa의 권위를 정립하기 위한 저자들의 주해를 분석해 본다. 이와 더불어 CaSa가 주요 밀교 전통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는 시기를 주석가들의 연대 문제와 함께 살펴보기 위해, 이 문헌들이 티벳역 되는 시기와 관련된 진술을 전하는 후대 티벳 사료들도 함께 검토해 본다.

주제어

차크라삼바라탄트라(*Cakrasaṃvaratantra*), 경전의 개시(*sūtrāmbha*), 자야바드라(Jayabhadra), 바바밧타(Bhavabhāṭṭa), 캄발라(Kambala)

I. 『차크라삼바라탄트라』(*Cakrasaṃvaratantra*)와 주석서

인도 밀교 전통 가운데 삼바라(Saṃvara, 혹은 Śaṃvara라고도 지칭) 전통은 분노존의 형태인 차크라삼바라(Cakrasaṃvara) 혹은 헤루카(Heruka)를 주존으로 삼는다. 이 전통에 속한 경전들 가운데 가장 초기에 성립된 핵심 경전인 『차크라삼바라탄트라』(*Cakrasaṃvaratantra*(이후 CaSa)는 요기니탄트라(Yoginītantra) 계열에 속하는 경전으로, *Herukābhīdhānatantra* 혹은 *Laghuśaṃvaratantra*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¹⁾ 이는 CaSa가 여러 단계의 전승을 거치면서 편집, 유통되

1) *Herukābhīdhānatantra*와 *Laghuśaṃvaratantra*라는 이명들은 특히 사본과 티벳역 등에서 발견된다. CaSa의 근본(mūla) 탄트라만을 담은 현존 사본들 중 가장 오래된 두 개의 패엽 사본(Baroda, NGMPP C44-3)은 탄트라를 *Herukābhīdhāna*라고 칭한다 (*iti herukābhīdhāne ... paṭalaḥ*). 일부 티벳역과 *Dākārnavatāntra*의 경우는 CaSa의 계승을 인용할 때 *Laghuśaṃvara*라 칭한다. 하지만 이 탄트라의 주요 주석가들은 본 탄트라를 *Cakrasaṃvaratantra*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도 이를 따른다.

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전거 중 하나이다.

경전의 첫 교정본은 주석 *Cakrasaṃvaratantravivṛti*(이하 *Vivṛti*)를 포함해 CIHTS(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에서 Rare Buddhist Sanskrit Text Series의 하나로 2002년에 출판되었다. 이후 탄트라 자체의 전체 영역(Gray 2007)과 재교정본(Gray 2012)이 출판되었지만, 후기 탄트라로 갈수록 더욱 부각되는 밀교 경전의 문법적 파격성을 감안한다면, 탄트라 자체에 대한 번역만으로는 이 전통의 저자들이 경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없기에 관련 주석서의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 주석들의 원문이 부분적 편집을 통해 계속해서 이뤄져 오고 있지만, 편집본 자체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주석서의 전체 원문 번역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본 경전을 CaSa라고 명명하는 주석서들 가운데 현재까지 산스크리트 사본으로 전해지는 것은 다음의 4종의 주석서이다.

- 1) 자야바드라(Jayabhadrā)의 『차크라삼바라탄트라판지카』(*Cakrasaṃvaratantrapañjikā*, 이하 *Pañjikā*)²⁾
- 2) 캄발라(Kambala)의 『사다나니디』(*Sādhananidhi*, 이하 *SāNi*)³⁾
- 3) 바바밧타(Bhavabhaṭṭa)의 『차크라삼바라탄트라비브리티』(*Cakrasaṃvaravivṛti*, 이하 *Vivṛti*)⁴⁾

2) Jayabhadrā의 *Pañjikā* 전체 교정본은 두개의 패엽(Palm-leaf) 범어 사본을 바탕으로 하여, 杉木恒彦(Sugiki, Tsunehiko), 『『チャクラサンヴァラタントラ』の成立段階について: およびJayabhadrā作Śricakrasaṃvarapañjikā 校訂梵本』, 『智山学报』 50 卷(東京:大正大学真言学智山研究室, 2001), pp.91-141를 통해서 출판되었다. 본고도 이를 저본으로 삼지만, 경우에 따라 기존 편집본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에디션이 참조했던 사본 NGMPP B30-41(A로 약칭)과 NGMPP B30-43(B로 약칭)을 함께 참고했고, 그 내용을 각주에 인용한 원문에 모두 포함시켰다.

3) Kambala의 *Sādhananidhi*의 부분 편집본에는 Tsunehiko Sugiki, “Kambala’s *Sādhananidhi* - Critical Editions of the Sanskrit and Tibetan Texts of Chapters from 4 to 7”, 『開智國際大學紀要』 第15号(開智國際大學, 2016), pp.19-45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논하게 될 *Sādhananidhi* 1장의 해당 원문은 편집되어 연구, 출판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NGMPP A 31-20(N로 약칭)와 Göttingen Xc 14-30(G로 약칭)의 두 사본을 사용하여 편집한 원문을 본문에 실었다.

4) Bhavabhaṭṭa의 *Vivṛti* 전체는 티벳역 교정본을 포함해서 CIHTS 편집본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이후 CIHTS 편집본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패엽 사본이 티벳에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Linan은 이를 입수하여 2005년에 *Vivṛti*의 1-3장을 《胜乐轮经》及其注疏解读 = Shengle lunjing jiqi zhushu jiedu, 李南校勘译注(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5)을 통해서 재교정, 출판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 편집본들이 미처 참고하지 않았던 또 다른 패엽 사본(Göttingen Xc14-56)의 흑백 촬영 필름이 독일

4) 샤슈바타바즈라(*Śāśvatavajra*)의 『타트바비샤다』(*Tattvaviśadā*).

이 중 마지막 주석의 사본은 전해진다고는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연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 본고는 범어 원문이 전해지는 처음 세 주석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티벳역으로만 전해지는 주석⁵⁾은 필요한 경우만 언급하고, 차후의 연구 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탄트라라고 불린 밀교 경전의 복잡한 전승 과정과 그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본고에서 사용할 ‘기록, 번역, 전승되는 텍스트’로서의 자료는 다음의 세 종류이다.

- CaSa의 경전적 위치와 의미를 개략하기 위한 관련 탄트라 등의 정전적 (scriptural) 자료
- 이 경전들에 관한 인도 저자들의 해설을 살펴보기 위한 주석적(expository) 자료
- 인도 찬술 경전과 주석문헌의 역경 과정을 전하는 티벳 사료(史料)의 자료

괴팅겐 대학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를 입수해 연구한 이후, 이 괴팅겐 사본이 고층의 벵갈지역 문자(Old Bengali)로 쓰여 있어 이전 편집본들이 참고했던 다른 사본들과 비교해 보아도 제작 연대가 앞서는 것으로 추정됨은 물론, 기존 편집 원문들이 지닌 해석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주는 선명한 읽기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사본들과 함께 이 사본을 추가로 참고하여 1장의 원문을 재편집하고, 영역하여 Junglan Bang, “The Opening Passages of Bhavabhaṭṭa’s Commentary (*Vivṛti*) on the Cakrasaṃvaratantra”, 『大正大学総合仏教研究所年報』 41号 (東京: 大正大学真言学智山研究室, 2019), pp.(139)-(164)를 출판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Vivṛti*를 인용하는 경우는 모두 Bang(2019)의 편집 원문을 사용하였다.

5) 티벳역으로 전해지는 주석에는 Bhavyakīrti의 **Śrīcakrasaṃvarasya pañjikā-Vīraṃānamā*(P2121/D1405)와 Devagupta의 **Śrīcakrasaṃvarasādhana-Sarvaśālinīṭikā* (P2123/D1407), Durjayacandra의 **Ratagaṇa-pañjikā* (P2120/D1404), Indrabhūti의 **Śrīcakrasaṃvaratantrarājaśaṃvarasamuccaya-vṛtti* (P2129/D1413), Tathāgatarakṣita의 **Ubhayanibandha* (P2125/D1409)의 주석서들과, 동명이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Vīravajra의 **Samantaḡaṇasālinī* (P2124/D1408)와 **Padārthaprakāśikā* (P2128/D1412)의 주석서 등이 있다. *Laḡhusaṃvaratantra*라는 이름으로 경전을 주석하는 이는 Sumatikīrti(P2127/D1411)인데, 이도 티벳역으로만 전해진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미편집, 미연구된 차크라삼바라 관련 문헌의 리스트는 Péter-Dániel Szántó, “Some unknown/unedited fragments of Cakrasaṃvara literature”, Handout for Zürich conference (<https://www.academia.edu/22416738/>) (검색일자 2020년 10월 30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 경전의 시작, *evaṃ mayā śrutam*에서 *athātaḥ*로

인도종교전통에서 “*sūtrāmbha*(경전의 시작)”는 경전의 진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종파의 권위와 특징을 한 눈에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시작 부분은 성전이 전승된 경위를 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이 때문에 주석자들은 경전의 첫 문장 혹은 첫 단어가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sāstrāmbha*(주석의 시작)”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여 경전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부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 구전 가르침이 기록 경전으로 정착하는 이러한 과정은 종교적 권위를 보증하기 위해 성립된 인도의 독특한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잘 알려진 대로 불설의 진위를 전하는 독송자(*saṃgītikāra*)가 가르침을 여는 “*evaṃ mayā śrutam* (如是我聞)⁶⁾”이라는 구절은 경전의 담화가 붓다로부터 직접적으로 설해졌다는 ‘진위(authenticity)’를 증명하는 인장 역할을 한다. 밀교 또한 대승불교의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구히야사마자탄트라』(*Guhyasamājatantra*)⁷⁾ 등 요가 탄트라 계열의 문헌은 물론, 『헤바즈라탄트라』(*Hevajatantra*)와 같은 요기니탄트라 계열에서도 이 첫 구절은 장소와 일시만이 변형된 채 그대로 이어진다. 이를 감안한다면, 천 년을 넘게 내려오던 이 같은 전통에 반하는 경전이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 동일한 밀교 전통 안이라 할지라도 일부의 저항을 일으킬만한 변화였을 것임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본고를 쓰면서 참고할 수 있었던 모든 원문 자료 가운데 이 같은 경전 시작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가장 이른 문헌은 『사르바부다사마요가다키니잘라삼바라』(*Sarvabuddhasamāyogaḍākinījālaśaṃvara*, 이후 SaBuSa)⁸⁾였다. 특이하게도 이 탄트라 경전은 어떤 경전의

6) 정확히는 “*evaṃ mayā śrutam ekasmin samaye* ([세존께서 ~에 머무시던] 어떤 한 때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를 포함한 문장이 불교문헌의 정형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정형구 전체를 지칭할 때, 여시아문에 해당하는 *evaṃ mayā śrutam*만을 언급한다.

7) *Guhyasamājatantra*의 경우는 “*evaṃ mayā śrutam ekasmin samaye bhagavān sarvatathāgatakāyavāk-cittahṛdayavajrayoḥidbhaṣeṣu vijāhāra* (Yukei년 1978. p.4)로 시작하는데, *evaṃ mayā śrutam*은 동일하고 그 근본 가르침이 일어난 경우와 장소가 변화한다. 『대일경』도 이 점이 티벳역과 한역에서 확인된다. *Hevajatantra*도 *Guhyasamājatantra*와 동일하다.

시작을 알리는 특정한 지시문구 없이 곧바로 다음과 같은 계송으로 시작되는데, 주석에 의거하지 않은 채 본송만을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비밀이자, 궁극적인, 마음을 즐겁게 하는⁹⁾ 일체의 본성에 언제나 머무는
일체의 붓다로 이뤄진 존재인 금강살타는 [다름 아닌] 최고의 지복이다.**

(rahasye parame ramye sarvātmani sadā sthitaḥ |

sarvabuddhamayah sattvo vajrasattvaḥ paraṃ sukham || 1.1 ||)

SaBuSa는 CaSa보다 적어도 한 세기정도 이상 일찍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적 성적 의례를 포함해 초월적 도덕률에 기반한 수행 양상을 실시하는 문헌이다. 또한 화장터(śmaśāna)와 성지(pīṭha)에서의 수행 등 샤이바(Śaiva) 전통의 요소가 유입되기 시작한 초기의 형태도 보여준다. 이처럼 요가탄트라(Yogatantra)와 요기니탄트라(Yoginītantra)의 과도기적 모습을 추적할 수 있어, 학자들은 이를 원형적 요기니탄트라(proto-yoginītantra)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이 문헌은 특히 CaSa의 문헌 성립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¹⁰⁾. 이전 연구

8) SaBuSa의 원문은 비교적 최근에 Dhṛṭ(Vol. 58, 2018) pp.141-201에서 불완전(incomplete)하게 남아 있는 사본을 이용하여 8장의 후반부까지만 편집되어 2018년에 출판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패엽 사본에 근거해 Péter-Dániel Szántó가 비판교정본을 작업 중이다. 이 문헌의 1장 전체의 일역으로는 伊集院榮, et.al, 『梵文和訳『サマヨウガ・タントラ』第1章』, 『大正大学総合仏教研究所年報』41号(東京: 大正大学真言学智山研究室, 2019), pp.(61)-(100)가 있다.

9) 계송에서 처격 parame를 rahasye 혹은 ramye의 수식어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의 비밀이자 마음을 즐겁게 하는’ 혹은 ‘비밀이자 궁극적인 즐거움인’ 정도로 번역된다. 위에서 제시한 한글 번역에서는 모든 처격의 수식을 받는 단어를 sarvātmani라고 보았는데, 이는 본고의 저자 자신이 이미 주석을 읽었기 때문에 나온 번역이기도 하다. 만약 주석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 단어 또한 rahasye의 수식구로서 본다면, ‘일체로 이루어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궁극의 비밀에서’라는 번역이 나온다. 이 갖가지 번역의 예들은 탄트라 계송 자체가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 번역 가능성 중 어떤 방식을 경전의 올바른 이해 방법으로서 이 전통의 담지자들이 채택해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측면을 다시 한 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0) CaSa의 또 다른 이름이 Herukābhīdhānatra(헤루카의 가르침에 관한 탄트라)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삼바라 전통의 주존인 차크라삼바라(Cakrasamvara)는 헤루카(Heruka)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헤루카를 주존으로 하는 헤바즈라(Hevajra) 전통과 근본 만달라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SaBuSa에서는 Vajrasattva, Vairocana, Heruka, Padmanarteśvara, Vajrasūrya, Paramāśva의 여섯 부족의 주요 승배가 설해지고 경우에 따라 다섯 부족만 언급되기 때문에, 이 경전이 CaSa를 포함 헤루카와 관련된 요기니 탄트라 경전들의 주요한 출처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

들은 SaBuSa의 티벳역만을 주요 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두 경전의 원문 일치 여부를 확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근래 산스크리트 사본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CaSa와 SaBuSa 간에 중첩되거나 매우 유사한 구절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히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주석가들의 주해를 배제하고, 본 계송의 문법 구조에만 의지해 CaSa의 첫 세 개의 계송을 한글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이제 이로부터 나[=바즈라다라]는 간결하게, 장황하지 않게 비밀에 관해 설할 것이다.

[이 비밀이란] 성스러운 헤루카(Heruka)와의 합일이며, 모든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며,

[어떤] 수승한 것보다도 더 수승한 “다키니들의 그물에 의한 엄폐 (Ḍākinījālasaṃvara)”이다.

비밀이자, 궁극적인,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체의 본성에 언제나 머무는 일체의 다키니로 이뤄진 존재인 금강살타는 [다름 아닌] 최고의 지복이다.

실로 [그는] 스스로 생겨난 자이고, 세존이며, 영웅인

“Ḍākinījālasaṃvara”이기 때문이다.

(athāto rahasyaṃ vakṣye samāsān na tu vistarāt |

śrīherukasam̐yogaṃ sarvakāmārthasādhakam || 1.1 ||

uttarād api cottaraṃ ḍākinījālasaṃvaram |

rahasye parame ramye sarvātmani sadā sthitaḥ || 1.2 ||

sarvadākinīmayah sattvo vajrasattvaḥ paraṃ sukham |

asau hi svayambhūr bhagavān vīro ḍākinījālasaṃvaram || 1.3 ||¹¹⁾)

위의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은 위의 두 문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장이고, 밑줄 친 부분은 조금의 변형이 있는 구절이다.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관련 자료로는 Tsunehiko Sugiki, “Śamvara”, *Encyclopedia of Buddhism*(Leiden: Brill, 2015), p.360를 참조할 수 있다.

11) 관련 영역은 Junglan Bang, *op. cit.*, pp.142 참조.

CaSa의 시작 계송들은 SaBuSa의 첫 번째 계송이 추가, 확장된 형식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유사(parallel) 계송 가운데에서, ‘금강살타(Vajrasattva)’를 ‘일체붓다로 이뤄진 존재’가 아니라 ‘일체의 다키니(dākinī)로 이뤄진 존재’라고 변형되는 부분에서 CaSa가 요기니탄트라 계열의 성격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자야바드라(Jayabhadra)의 『판지카』(Pañjikā)

본고의 주요 논의는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이탤릭체로 표기한 *athātaḥ*라고 하는 CaSa의 시작 문구에서 출발한다. SaBuSa에서는 이 문구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CaSa의 버전에서만 발견되는 이 시작 문장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져야만 했는지는 주석자들의 해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주석자인 자야바드라(Jayabhadra)는 자신의 주석에서 그 당시 이전부터 이같이 변형된 경전의 시작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의문을 표해왔다고 증언한다. “어째서 독송자(samgītikāra)가 이 탄트라에 처음에 *evaṃ mayā* 등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의구심을 표하면서 논박하고자 한다.”¹²⁾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이 의구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자야바드라는 기존의 정형구가 시작에 쓰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 ““세존의 무주열반(*apraṭiṣṭhita-nirvāṇa*)을 보이기 위함”이며, 이는 본송(1.2b) 중 “일체의 본성에 언제나 주하는(*sarvātmani sadā sthitaḥ*)”의 구절과 연결시켜 이해해야만 한다.”¹³⁾ 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세

12) *Pañjikā ad 1.2* (A1v2-3 ; B1v3-6): *atra tantrāḍav evaṃ mayetyādinā samgītikāreṇa kasmād upodghāto (B, upodghāte A) na kṛta iti codyam anūdyā, kecid evaṃ parihārārtham vyācakṣate |* 이 문헌은 앞서 언급했듯이, 개괄적인 문헌의 성격과 함께 전체 원문이 비판 교정되어 출판되어 있다. 이 유용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집 원문 자체가 현대어로 번역된 적어 본고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번역한다. 가능하다면 산스크리트 원문의 세세한 문법 구조를 모두 살려서 번역하고자 하였지만, 지면상 전부를 실을 수는 없어 논지의 전개에 번역을 포함시켰다. 적어도 관련 원문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원어를 그대로 인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원문 문장을 압축 번역한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Pañjikā*의 기존 편집본을 참고했지만, 기존 원문 편집과는 의견을 달리한 경우가 있어, 본 저자의 교정본 읽기를 보이기 위해 사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해 재편집한 원문임을 밝힌다.

존의 열반 상태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apraṭiṣṭhita)’ 것이기에, 이는 곧 ‘세존이 모든 것에 언제나 깃들여 있다’(sarvātmani sadā sthitaḥ)라고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정황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독송자에게는 이 가르침이 설시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자야바드라는 여기에 더해, “‘하지만 어떤 다른 이들은(anye) [CaSa가] 십만송으로 지어진 근본탄트라인 『카사마탄트라』(Khasama[-tantra])에서 추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처음 근본탄트라[=『카사마탄트라』]에서 evam[으로 설해지는 경전의 시작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탄트라]를 뒤따르는 [탄트라인] 여기[CaSa]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고 추가적으로 증언한다. 이 부분만을 가지고는 CaSa의 권위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세부적 해석과 이유에 대해서 자야바드라와 이해를 달리 한 이 ‘다른 이들(anye)’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뒤에서 살펴볼 캄발라(Kambala)의 주석 SāNi에서 이러한 견해에 상응하는 구절이 등장하므로, 이 세부 내용은 캄발라의 주석 부분에서 따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자야바드라는 주석에서 “자 그럼, 이제(now)”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전의 첫 단어 atha가 “즉각적 연속성(ānantarya)”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며, 이는 즉, 근본 탄트라였던 『카사마탄트라』(Khasamatantra)가 먼저 설해지고 그 직후에 CaSa가 설해졌다는 의미로서, 독송자는 [이러한 연유로] “atha”를 경전의 첫 단어로서 시작하게 된 것¹⁵⁾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경전의 두 번째에 나오는 atah(이로부터)에 대해서는 ‘이전에 교시된 탄트라의 전후 순서와

13) *Pañjikā ad 1.2* : bhagavato 'praṭiṣṭhitanirvāṇapradarśanārtham ity etad eva spaṣṭayati (B, omit. A) sarvātmani sadā sthita iti || *원문 인용 관련 노트: 굵은 글씨는 본송 단어의 인용(pratīka)을 표시한다. 편집본은 杉木恒彦 p.105 참조.

14) *Pañjikā ad 1.1*. (A1v3-4; B1v6-2r1) : anye tu śatasāhasrikāt khasamān mūlatantrād uddhṛtatvāt tatraivādaḥ mūlatantra evam ityādinā nirdiṣṭatvād atra taduttaratantre na kṛta (B, kṛtam A) iti | 앞의 편집본, p.105 참조.

15) *Pañjikā ad 1.1* (A1v8-2r1 ; B2v4-6) : athetyādinā nipātasamudāyenāsyottaratantratvaṃ niścīnoti | athetyānantarye, khasamatantrānantaram vaksyamānam idaṃ vaksye kathayīṣyāmīti sambandhaḥ | 앞의 편집본 pp.105 참조.

그 출처(원인)를 명확히 하여, CaSa와 근본 탄트라 관계가 자세히 드러나도록 배치된 단어'라고 풀이한다¹⁶⁾. 이 자야바드라의 해석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atha(이제)는 “독송자가 세존께서 근본탄트라의 교시를 끝내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CaSa의 교시를 하셨기” 때문에 나온 단어이며, atah(이 다음에)는 ‘근본 탄트라 다음으로 CaSa가 나왔음’을 확정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의미에서 atha라는 단어는 축성(祝聖 maṅgala)이라는 목적에서 쓰이며, 그렇기에 논서의 처음에 문장들이 축성(祝聖, maṅgala) [게송] 등으로 시작하는 것에는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데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¹⁷⁾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 가능성으로서, “또한, atha의 의미는 [문헌의] 시작, 개시의 뜻도 지닌다¹⁸⁾”고 부언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야바드라가 말하는 이 후자의 정의는 『요가수트라바쓰야』(Yogasūtrabhāṣya), 『마하바쓰야』(Mahābhāṣya) 등의 잘 알려진 힌두 고전들에서 문헌의 시작을 꾸미는 첫 단어인 atha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주석하는 문구들¹⁹⁾을 선명히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학식 있는 인도 주석가들이 특정 종교에 구애 받지 않고 범어 주석 전통 사이의 관습이나 잘 알려진 경구들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는 -매우 당연한 듯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것이 비불교 전통에서 관습적 해석의 한 종류였다 할지라도, 자야바드라 역시 그러한 전통적 해석을 자신의 주석에서 추가 풀이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atha가 지닌 또 다른 문법적 기능으로서 “ānantarya

16) *Pañjikā ad* 1.1 (A2r1-2; B2v6-3r1) : **ata** iti krame hetvarthe ca | tadanantaram iti (B, omit. A) viṣpaṣṭam vaktavye (B, vaktavyeti A) | 앞의 편집본, pp.106 참조.

17) *Pañjikā ad* 1.1 (A2r2; B3r1-2) : athaśabdopādānaṃ maṅgalārtham | maṅgalādīni śāstrādau (A śāstrasyādau B) vākyāni śrotṛnām nirvighnārtham | 앞의 편집본, p.106 참조.

18) *Pañjikā ad* 1.1 (A2r2; B3r2) : adhikārārtho (B, avikārārtho A) vā | 앞의 편집본, p.106 참조.

19) *Yogasūtrabhāṣya ad Yogasūtra* 1.1 : athety ayam adhikārārthaḥ | yogānuśāsanam śāstram adhikṛtaṃ veditavyam |; *Mahābhāṣya* (Kielhorn 에디션 p.1) : athety ayam śabdo 'dhikārārthaḥ prayujyate | śabdānuśāsanam śāstram adhikṛtaṃ veditavyam || ; 요가수트라의 atha의 의미에 대한 주석 방식 연구로는 정승석, 「요가수트라 개시 선언의 해석학적 의미」, 『인도철학』 제24집(서울: 인도철학회, 2008), pp.51-81가 있다.

(즉각적 연속성)”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풀이는 비단 요가학과와 문법학 관련 문헌뿐 만이 아니라 베단타는 물론 미망사 학파 등의 문헌에서도 널리 발견된다.

다음으로, 본송의 1.1b “samāsān na tu vistārāt”에 대해 자야바드라는 두 가지 가능한 풀이를 제공한다. 먼저 ‘경전의 핵심이 설해지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세존께서는 “samāsāt(집합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근본 탄트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samkṣepāt)” 가르침을 설하실 것이라는 의도²⁰⁾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의미는 ‘장황하지 않게(na tu vistārāt)’ 설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도 또한 본송의 문법 구조를 해석할 다른 가능성을 부연하는데, “na tu samāsāt (간략하지 않게)”이기 때문에 즉, “vistārāt (상세하게)”라고 구문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주석한다²¹⁾. 다시 말하면, “na tu”를 앞의 “samāsāt”에 걸어서 푸는 방식과 뒤의 “vistārāt”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2. 캄발라(Kambala)의 『사다나니다』(Sādhananidhi)

초기 주석 중 하나인 캄발라(Kambala 혹은 Kambalapāda)의 주석 Sādhananidhi (이후 SāNi)는 자야바드라의 Pañjikā와는 분명히 차별되는 노선에서 주해를 하고 있다²²⁾. 캄발라는 “*atha*”라고 시작되는 이 탄트라라는 여타 [다른 전통]의 탄트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atha*라는 말은 [동일 계보의] 이전 [근본] 탄트라와 관련하여 본 탄트라[=CaSa]의 즉각적인 연속성(ānantarya)을 밝히고 있는 것²³⁾이라 주석한다. 이는 자야바드라의 Pañjikā 설명과 비교

20) Pañjikā ad 1.1b (A2r6-7; B3v3-*) : katham vakṣya (A, vakṣyata B) iti prakāṣayann āha - samāsāt samkṣepāt | Khasame tantre ’tivyāsata (B, ’tivyāsaḥ A) ity abhiprayāḥ |

21) Pañjikā ad 1.1b (A2r7-8; B3v*-6) : tam evārtham prakāṣayann āha - na tu vistārād iti | athavā na tu samāsāt, kiṃ tarhi vistārād iti vā sambandhaḥ |

22) 본고에서 Sādhananidhi 1장은 두개의 패엽 사본을 사용해 편집한 필자의 교정본을 인용한다. G와 N이라 약칭된 사본에는 산디(sandhi)와 비음들(nasal)들, 아바그라하(avagraha) 등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은 따로 모두 언급하지 않고 교정하였다. 사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참고문헌과 각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Sādhananidhi ad 1.1 (G1v1-2; N1v1-2) : athetyadi naitat tantram tantrāntaraiḥ samyuktam, tasmād ayam athaśabdaḥ pūrvatantrāpekṣayāśya tantrasvānantaryam dyotayati |

해도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무엇이 그 근본 탄트라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캄발라는 ‘삼십만송으로 이뤄진 본래 담화[=근본 탄트라]에서 이미 “*evaṃ mayā...*” 등이 설해졌기에, 여기, 이 탄트라에서 인연담(因緣譚 *nidānavākya*)은 따로 설해지지 않았다²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근본탄트라의 분량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데, *Pañjikā*는 십만송, *SāNi*는 삼십만송이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캄발라의 주석에서 나타나는 ““*evaṃ mayā...*”로 시작하는 문구의 생략의 이유를 ‘그 문구들이 이미 근본 탄트라에 설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견해는 앞서 언급했던 자야바드라의 *Pañjikā*에서 증언하는 “견해가 다른 이들(*anye*)”의 입장과 동일선상에 있다. 물론 이러한 견해 차이점만으로는 아직 정확히 해결되지 않은 두 인물의 연대적 선후관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CaSa의 탄트라의 권위성을 주해하는 방식에 따라 이 주석가들이 활동했던 비슷한 시기에 의견을 달린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캄발라 주해의 독자성은 *ataḥ*에 대한 해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는 “*ataḥ* (이로부터)”를 “*akārāt*(음절 *a*로부터)”라고 풀이하면서, 즉, 음절 *a*에 탈격의 접미사 *-taḥ*가 붙은 형태²⁵⁾로 해석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이같은 해석이 가능한 정전적 근거로서 『슈리차크라만달라람카라』(*Śrīcakramandalālamkāra*)와 『드비칼파라자』(*Dvikalparāja*)라는 경전의 계송을 각각 인용하고 있다. 첫 번째 인용구는 “음절 *a*(아)는 등불의 모습으로 심장 가운데에서 타오르며, 손상되지 않으며, 온전하고, 가장 수송하며 파괴되지 않는, 미세한 최

24) *Sādhananidhi ad 1.1* (G.1v2; N1v2) : *yasmāt trīlakṣābhīdhāne*(G, *trayalākṣā- N*) *evaṃ mayety uktam | ata eva nāsyādaṁ nidānavākyaṁ* (G N^{pc}, *nidānā- N^{pc}*) *prayuktaṁ |* 본고의 주제를 넘어서, *Kambala*의 이 주석, 특히 이 부분(각주 15와 16의 인용문)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장들이 *Ratnākaraśānti*가 저술한 *Mahāmāyātāntra*의 주석인 *Guṇavati*의 오프닝에서도 똑같이 사용/차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SāNi*의 *yasmāt*를 *Guṇavati*는 *tasmāt*로 언급하는 것을 빼면 완전히 동일하다. 이는 비단 이 문장만이 아니라 *SāNi* 오프닝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SāNi*의 비판 교정본과 번역을 따로 만들어 이러한 유사성에 대해 차후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25) *Sādhananidhi ad 1.1* (G2r1; N1v7) : *ata ity akārāt (ity akārāt GN) | sarvaṃ vakṣya(N, sarvadaśyata? G) iti sambandhaḥ |*

상의 힘을 지닌다²⁶⁾”라고 설한다. 두 번째 인용구는 “배(몸의 가운데)에 있는, 타오르는 등불의 불꽃과 같은 모습을 한 마하무드라(Mahāmudrā)는 첫 모음 (즉, a)이라는 본성을 지닌 지혜이기 때문에, 이는 붓다들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다²⁷⁾”라고 말한다²⁸⁾. 즉, 이 두개의 인용구는 음절 아(a)의 밀교적 중요성을 드러내는 계송이다. 탄트라 전통에서 a는 단순히 음절 단위의 첫 번째 소리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며 표현 가능케 하는 원리로서의 세계의 근본적인 시작이자, 밀교의 진언과 관상법의 요의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근거로 캄발라는 “a[라는 음절]로부터 모든 [근본 탄트라의 가르침]을 나[독송자]는 설할 것이다²⁹⁾”라고 CaSa 본 계송의 *vaksye*(1.1a)와 문법적으로 연결해 “ataḥ”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해한다. 다시 말하자면, SāNi는 ataḥ를 CaSa와 근본 탄트라의 전후 관계를 지시하는 단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탄트라의 비의적 의미가 담긴 단어로서 해석하는 것이다.

CaSa의 1.1b인 *samāsān na tu*에 대해서도 캄발라는 이 문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samāsāt* (간결하게)”라고 말해진 바는 [가르침이 담긴] 계송 분량의 압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르침의] 의미라는 점에서 [축소는] 전혀 없다 (*na tu*)”. 왜냐하면 붓다의 모든 법들이 [이 경전에서] 다뤄지기 때문³⁰⁾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어의 새로운 끊어 읽기를 제시한다³¹⁾. 비록 캄발

26) *Sādhananidhi ad* 1.1a (G1v5-2r1; N1v5-6) : *Śrīcakramaṇḍalālamkāre* (G, -maṇḍalālamkāre N) 'py uktam - prajvalantam dīpasamḍṣaṃ hṛdī madhyamam (G, madhyagam N) anāhatam | akṣaram paramaṃ sūksmaṃ akāraṃ paramaṃ prabhūm || iti |

27) *Sādhananidhi ad* 1.1a (G1v5-2r; N1v6) : punaś coktaṃ *Dvikaḥparāje* - mahāmudrā sthitā nābhau jvaladdīpasīkhākārā | ādisvarasvabhāvā sā dhīti buddhaiḥ prakalpitā ||

28) 『드비칼파라자』는 『헤바즈라탄트라』(*Hevajratantra*)를 지칭하는 이명이지만 현재 출판되어 있는 『헤바즈라탄트라』의 편집본들에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흡수한 유사 구문만이 찾아진다. : *Hevajratantra* II.40c-41ab (Snellgrove 편집본 p.66) : tasya saukhyaṃ mahāmudrā saṃsthitā nābhimaṇḍale | ādisvarasvabhāvā sā dhīti buddhaiḥ prakalpitā ||

29) 각주 24 원문 참조

30) *Sādhananidhi ad* 1.1b (G2r3-4; N2r2-3) : **samāsād** iti saṃkṣepāt (G, *** N) granthapramāṇataḥ (G, granthapramā*taḥ N) | **na tv** arthaḥ | sarvabuddhadharmāṇāṃ saṃgrāhakatvāt (G, saṃgrahakatvāt N) |

31) 간략히 정리하자면, 자야바드라의 경우는 “*samāsān na tu, vistarāt*” 혹은 “*samāsāt, na tu vistarāt*”라고 두 부분으로 나눠 읽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이고, 캄발라는 “*samāsāt, na tu, vistarāt*”라고 세 번에 걸쳐 끊어 읽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라가 따로 “vistarāt(1.1b)”의 풀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모든 법을 종합한다’는 마지막 부분은 이와 관련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캄발라는 이 구절을 ‘CaSa에는 붓다의 일체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본 탄트라에 게송이 줄어든 것일 뿐, 가르침의 의미는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라는 함의를 지닌 것으로 해설한다.

3. 바바밧타(Bhavabhaṭṭa)의 『비브르티』(Vivṛti)

앞의 두 주석자들보다는 후대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바밧타(Bhavabhaṭṭa)의 주석을 앞의 주석들과 비교해 보면 그가 어떻게 선대의 견해를 수렴하고 개정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먼저 바바밧타는 CaSa가 현존하지는 않지만 근본 탄트라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문을 확실히 없애고자, “samāsān na tu vistarāt (1.1b)” 부분의 주석을 통해 ‘출처가 되는 경전으로부터 계송 분량의 축소가 있었을 뿐(samāsāt), 그 의미에는 어떤 축약도 없으므로 (na), 핵심은 상세하게(vistarāt) 설해지고 있다³²⁾’고 좀 긴 분량으로 서술하는데, 이는 선대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카사마탄트라』(Khasamatāntra)를 근본탄트라로서 상정하는 자야바드라와는 다르게, 『카사마탄트라』와 CaSa의 사이에 『카사마-』(Khasamā)³³⁾라는 다른 중간 매개의 탄트라가 있다³⁴⁾

32) Vivṛti ad 1.1. : vajravārāhyāsāṅkām āśaṅkyāha - samāsād iti | samasanaṃ samāsaḥ stokībhāvaḥ | sa kim arthasyāthavā granthasya ity āśaṅkyāha - na tv iti | tuśabdo `vadhāraṇe naivārthasaṅkṣepaḥ | āśaṅkitārthanivṛttyartho vā tuśabdaḥ samāso nārthasyety arthaḥ | granthasaṅkṣepasyaivābhimatatvād iti bhāvaḥ | arthasyāpi kuto na saṅkṣepa ity āha - vistarād iti | arthasya vistaro bhūyastvaṃ yataḥ |. Mss.의 다른 읽기와 영역은 Bang, op. cit., pp.153-4를 참조.

33) Jayabhadra는 Khasama[-tantra]로 증언하지만, Bhavabhaṭṭa는 Khasamatāntra는 물론 Khasamā라는 여성형의 경명 또한 언급한다. 저자는 이를 동일 계열의 두 종류의 탄트라를 설하는 것으로 이해했다(해당 원문은 각주 13 참조). 동명이경에 대해 덧붙이자면, 현재까지 전승되는 Ratnākaraśānti(11세기)가 저작한 Khasamatāntra에 대한 주석인 Khasamā와는 다른 경전으로 보이며, CaSa의 출처가 되는 탄트라들은 범어 원문이나 티벳어로 전해지지 않는다.

34) Vivṛti ad 1.1. : yady artha iha saṅkṣipyate tadā nābhimatārthasiddhiḥ | khasamatāntraṃ ca nānukṛṣṭaṃ syāt | khasamaiva granthataḥ saṅkṣiptā, śricakrasaṃvaratantraṃ tadadhimūktānām matam | (만약, 여기 [CaSa]에서 의미가 축약되었다고 한다면, 의도했던 의미는 얻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Khasamatāntra는 [근본탄트라에서]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Khasamā는 다른 아닌 계송 분량의 측면에서 압축된 것이고, Śricakrasaṃvaratantra는 그 [Khasamā 가르침]에 마음이 향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Mss.의 다른 읽기와 영역은 Bang, op. cit., pp.153-4를 참조.

고 상정하여, 전승된 경전 계보를 좀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경전의 첫 두 단어인 *atha*와 *ataḥ*에 있어서도 바바밧타는 *atha*를 ‘즉각적 연속 (*ānantarya*)’의 의미라고 대동소이한 해석을 하지만, *ataḥ*는 선행적/독립적 동사형(*lyap, gerund*)이 생략된 의미를 내포하는 탈격으로 풀이한다. 즉, ‘근본 탄트라’의 가르침에 바로 이어, 핵심 탄트라를 뽑아낸 후(*ākārīkṛtya*, 직역은 ‘채굴한 후에’) “그로부터(=*ataḥ*)”³⁵⁾고 *ataḥ*의 의미를 푼다. 이는 상술한 1.1b의 주석에서와 같이 의미상의 축약이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바바밧타는 선대의 주석가들의 기본적 견해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다른 독자적인 해석 방식을 고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ivṛti*에서 바바밧타는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에 유통되던 동일 경전의 여러 버전과 밀교 경전의 파격 구분 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를 꼼꼼하게 논하고 있어, 이 주석은 경전의 유통은 물론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주석서들이 본송의 문장 풀이를 즉각적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바바밧타는 불교식 논서의 시작과 관련된 형식을 더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그는 본격적인 *athātaḥ*의 해설 전에, 바수반두(*Vasubandhu*)가 『석궤론(釋軌論)』(*Vyākhyāyukti*)에서 정의하는 주석의 다섯 요소/과정을 인용하면서 저작의 목적(*prayojana*)을 밝힌다. 이어 *CaSa*의 교시자는 사카무니를 화신(*nirmāṇa-kāya*)으로 삼는 바즈라다라(*Vajradhara*, 持金剛)이며, 청문자는 차크라삼바라(*Cakrasaṃvara*)의 배우자 여신인 바즈라바라히(*Vajravārāhī*), 그리고 첫 독송자는 비즈라파니(*Vajrapāṇi*, 金剛手)임을 특정한다. 이는 불교 주석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CaSa* 계송 1.1ab를 통해서 주제(*abhidheya*)와 세존의 가르침/말씀(*abhidhāna*)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1.1c-2송에서는 다섯 가지의 특정한 구족(*sampad*)이 반영되고 있다는 독창적인 해설 또한 내놓는다³⁶⁾.

35) *Vivṛti ad 1.1a* : *athāśabda ānantarye, ata itī lyablope pañcamī, mūlatantradeśānāyā anantaram mūlatantram evākārīkṛtya rahasyaṃ vaksya itī sambandhaḥ* | *Ibid.*, p.150 참조.

36) *Bhavabhṭṭa*의 *Vivṛti*에서 경전 도입부에 대한 전체 번역과 관련 상세 분석은 Bang 2018을 참조.

논서의 시작에서 주석하는 경전의 말씀(abhidhāna)과 주제(abhidheya), 그리고 관계(sambandha), 목적(prayojana)과 그 목적의 목적(prayojanaprayojana)을 밝히는 이 같은 불교 고유의 주석 스타일은 6-7세기 불교인식논리학의 정립 이래 안착된 불교 주석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야바드라는 이 목록들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캄발라는 따로 해석을 내놓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주석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해설이 이전 주석서에 부재했기에 바바밧타가 이를 보충해야 할 과제로 여겼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지점은 바바밧타의 주석 형식이 하리바드라(Haribhadra)의 『현관장엄론(現觀莊嚴論)』(*Abhidsamayālaṃkāralokā*) 등의 대승불교 논서 시작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인용하는 계송들 또한 하리바드라가 강조했다던 인용문들을 거의 유사하게 가져와서 쓰고 있다는 점³⁷⁾이다. 바바밧타 뿐만 아니라 후대의 아바이카라굽타(Abhayākaragupta), 라트나락시타(Ratnarakṣita) 등이 지은 주석³⁸⁾에서도 소위 하리바드라의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대승불교 논서의 개시 형식(śāstrāmbha)이 탄트라 전통의 밀교 저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패러다임의 전환과 그 의미

경전의 시작은 그 계시서의 정통성 및 권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 주석 전통은 그 뜻과 함의를 해석하는 데 다양한 방식을 전개해 왔다. 불교 경전에서는 불설의 집적을 확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압축적 문구인 “evaṃ mayā

37) Haribhadra의 서술 방식과 관련 원문의 한글 번역, 내용 분석은 이영진, 「하리바드라의 *Abhidsamayālaṃkāralokā*에 나타난 논서의 시작(Śāstrāmbha)」, 『인도철학』 제33집(서울: 인도철학회, 2011), pp.169-201과 이영진, 「『현관장엄론』 1-2계송에 대한 하리바드라의 부자연스러운 해석과 경전을 주석하는 방법론」, 『한국불교학』 제62집(서울: (사)한국불교학회, 2012), pp.153-182에서 자세히 다뤄진다.

38) 구성과 인용에서 확연히 유사성이 발견되는 주석서들로는 Abhayākaragupta가 저작한 *Saṃputo-dbhavatāntra*의 주석 *Āmnāyamañārī*와 Ratnarakṣita가 저작한 *Samvarodayatantra*의 주석 *Padmīnī* 등이 있다.

śrutam ...”이 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한 유구한 전통에 변화가 관찰되는 경전으로서의 CaSa의 첫 문장은 불설로서 불교 경전의 위상을 바즈라야나(Vajrayāna)가 재편하는 가운데 생겨난 눈에 띄는 현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문헌의 출현은 자연스럽게 전승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시무중(無始無終)의 삼세의 붓다로부터 설해진 것이라는 밀교적 가르침이 이전의 경전 권위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과 풀이가 요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선택된 것이 바로 “athātaḥ”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전을 여는 첫 단어로서 atha가 사용된 것은 분명 불교 밖의 전통에서 더 널리 발견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교 밖 인도 주석가들은 이것을 ‘개시(adhikāra)’와 ‘즉각적 연속성(ānantarya)’이라는 뜻을 담지한 것으로서 그 경전에 정통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두 번째 단어인 ataḥ를 포함한 athātaḥ라는 시작 또한 고대 힌두 문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ataḥ(이 때문에/이로부터)는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hetau, hetvarthe) 사용된다³⁹⁾”라고 말하는 전형적 설명도 여러 주석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CaSa의 주석가들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해설은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은 이 주석가들도 그러한 힌두 전통을 숙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불교 사상가들이 경전의 계시에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해석적 시도를 할 때, 불교 밖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경전의 개시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응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산스크리트라는 언어적 측면에서 구문론적이고 의미론적 기반을 사용하는 데에는 종파적 교리적 이름표가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탄트라 주석가들은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 그 위에 대승 논서의 저작 형식을 도입하고, 밀교적 의미의 확장을 동시에 꾀함으로써 탄트라 경전의 본 계승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오한 의미를 주석 안에서 명료하게 발전시키는 데 나름의 독자적 영역을 성립하였다고 평할 수 있다.

39) 예로, 샤이바싯단타의 *Mrgendrāgama*에 대한 Nārāyaṇakaṇṭha의 주석 중: athaśabdo 'dhikārthaḥ | ataḥśabdas tu yogapādānantaryam |; *Suśrutasaṃhitā* 중 : athaśabdo 'tra pūrvādhyaīdānantarye, ataḥśabdo hetvarthe 등을 들 수 있다.

III. 『차크라삼바라탄트라』(*Cakrasaṃvaratantra*)와 초기 주석가들의 연대

지금까지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CaSa에 대한 해설방식이 저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과정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CaSa 경전 자체의 성립 연대와 주석가들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다.

CaSa의 티벳역은 티벳 역경가 린첸상포(Rin chen bzang po, 958-1055)에 의해서였다고 전한다. 이와 더불어 CaSa에서 인용되는 다른 밀교 경전의 연대를 감안한다면⁴⁰⁾ 이 밀교 경전은 늦어도 10세기 이전(*terminus ante quem*)부터, 빨라도 8-9세기 이후(*terminus post quem*)가 넘어서야 CaSa라는 이름을 달고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 무렵으로 CaSa의 연대를 어림잡아 계산하고, 다시 이를 통해 역으로 주석가들의 연대를 추정해 보자면, 가장 이른 주석자인 자야바드라의 연대는 10세기 전후으로 볼 수 있다.⁴¹⁾

티벳 역사서 중 타라나타(Tāranātha 1575-1634)가 지은 『인도불교사』(*rGyagar chos 'byung*)의 38장은 비크라마스릴라(Vikramaśīla) 승원의 계보에 속한 10명의 학장들을 **Jayabhadra** → Śrīdhara → **Bhavabhadra** [=Bhavabhāṭṭa] → **Bhavyakūrti** → Līlāvajra → **Durjayacandra** → Kṛṣṇasamayavajra → **Tathāgatarakṣita** → Bodhibhadra → Kamalarakṣita의 순서로 열거한다.⁴²⁾ 여기에서 굵

40) CaSa가 언급하는 탄트라라는 *Paramādyā, Vajrabhairava, Sarvatathāgatasaṃgraha, Guhyasamāja*, 그리고 *Sarvabuddhasamāyogaḍākinijālasaṃvara*이다. Alexis Sanderson, “The Śaiva age : The Rise and Dominance of Śaivism During the Early Medieval Period”, *Genesis and Development of Tantrism*, ed. Shingo Einoo (Tokyo, Japan, 2009) p.163 fn.383를 참조.

41) CaSa와 Jayabhadra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티벳 사료를 중심으로 David Jackson과 David Gray는 Jayabhadra의 연대를 9세기로 소급한다. 이는 CaSa의 구절을 8세기의 저자 Vilāsavajra가 인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CaSa의 연대가 훨씬 이전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Alexis Sanderson은 그 인용 구절은 CaSa가 아닌 SaBuSa의 구절임을 밝히면서, 티벳 사료는 물론 산스크리트 구문과 용어, 음운론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CaSa의 이른 버전이라 할 수 있는 *Laghuśaṃvara*가 900년 이전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Ibid.*, pp.158-169.

42) 해당 원문은 Anton Schiefner, “*Tāranāthae de Doctrinae Buddhicae in India Propagatione Narratio*.”

은 글씨로 표시한 다섯 인물은 CaSa의 주석을 남긴 인물들이다. 타라나타의 서술과 실제 주석가들의 연대 사이에 오, 육백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전설적 요소가 가미되는 티벳 역사서의 서술 특징을 감안해서 이 계보의 정확성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각 주석가들이 사용했던 CaSa의 유통본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석가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연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Sanderson 2009). 자야바드라는 CaSa의 끝을 50번째 장으로 맺고 있고, 바바밧타는 51장을 마지막 장으로 주석하기 때문에, 이 두 초기 주석가의 활동 연대 사이의 시간적 간극 동안 이미 CaSa의 개정과 확장이 일어났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50장을 마지막으로 주석하는 경우가 자야바드라의 주석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브야키르티(Bhavyakīrti)가 저술한 『비라마노라마』(**Vīramānoramā*, P2118/D1401) 또한 50장을 CaSa의 마지막 장으로서 주석한다. 이는 바브야키르티도 자신의 스승격인 자야바드라가 주석했던 CaSa와 유사한 버전을 자신의 주석 저본으로 삼고 있었음을 뜻한다.⁴³⁾ 이뿐만 아니라 자야바드라의 이명인 콩카나파다(Koṅkanapāda)⁴⁴⁾라는 이름을 써서 스승의 견해를 자신의 주석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잦아 이 두 인물이 시대적으로, 사상적으로 매우 가까웠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상적 전거와 기타 정황 등⁴⁵⁾을 근거로, CaSa의 주석자들만을 놓고 볼 때, 바브야키르티(Bhavyakīrti)가 바바밧타(Bhavabhṭṭa)보다 연대가 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타라나타의 바브야키르티라는 인물이 CaSa

Contextum tibeticum e codicibus petropolitanis edidit Antonius Schiefner", Academia Scientiarum Petropolitana (St. Petersburg, 1868), pp. 195-199를 참조.

43) Alexis Sanderson, *op. cit.*, p.158 fn.363를 참조.

44) 타라나타의 간략한 전기에 따르면, Jayabhadra는 스리랑카에서 출생해 성문전통을 통해 출가하였지만, 마가다(Magadha)로 와서 대승의 교학과 밀교를 수학한 것으로 전한다. 그리고 비크라마실라 사원에 머물며 차크라삼바라 전통의 밀교 수행을 통해 성취를 이뤘으며, 마하빔바(Mahābimba) 탐이 있던 콩카나(Koṅkana)라는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밀교 가르침을 전하며 *Pañjikā*를 저술했다 한다. 그가 콩카나라는 장소와 관련이 있으며 이 곳에 실제로 마하빔바라 불리는 탐이 있었다는 것은 인도 사료는 물론, *Pañjikā*의 저술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지은 계승들에서도 확인된다.

45) 여러 명의 Bhavyakīrti에 대한 연구로 Peter-Daniel Szántó, "'Word of the devil' - A polemic passage on the authenticity of the *yoginītantras* in the **Vīramānoramā* of Bhavakīrti I", (TIWET handout, July 23, 2010; <https://www.academia.edu/1453099/>) (검색일자 2020년 12월 18일)를 참조해 볼 수 있다.

의 주석가 바브야키르티와 동일한 인물이 아닐 가능성도 함께 열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타라나타가 전하는 비크라마실라 학장의 계보에는 캄발라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외의 티벳 역사 관련 기록에서도 캄발라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이 이름이 저자로 전해지는 대표적인 문헌에는 팔천송반야경을 요약한 『나바술로키』(*Navaslokī*)와 불교 안과 밖에서 널리 인용되는 중관학과 관련한 『알로카말라』(*Ālokamālā*) 등과 같은 비-바즈라야나의 문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캄발라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에는 보다 복잡한 여러 정황이 산재한다⁴⁶⁾. 그리고 10세기 무렵에 밀교 성취법들에 대한 저서를 남기고 있는 라바파(*La ba pa*)⁴⁷⁾도 캄발라라는 이름으로서 티벳 사료들에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캄발라라는 이름의 저자가 적어도 두 명이상이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여타 상황을 배제한 채, CaSa의 주석가로서 캄발라만을 놓고 보자면, 바브야키르티의 주석에서도 캄발라의 SāNi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어서, 이 세 주석가들 가운데 자야바드라와 캄발라의 양자가 바바밧타 이전이라는 점은 확인된다.

각 주석의 번역의 시기는 역자 등의 정보를 담은 각 문헌의 간기(colophon)를 통해서 추적될 수 있다. 아쉽게도 자야바드라의 *Pañjikā*의 티벳역 간기는 번역자에 관한 정보를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캄발라의 SāNi 티벳역 간기는 이 문헌이 인도인 수리아굽타(*Sūryagupta*)와 함께 괴래채(**Gos lhas btsas* = **Devasūta*)라는 티벳 역경가에 의해 번역되었다고 전한다. 바바밧타의 *Vivṛti* 경우는, 바리로차와 린첸닥(*Ba ri lo tsā ba Rin chen grags*, 1040-1111)이 인도인 스승 아툴라바즈라(*Atulavajra*)와 함께 번역했다고 전하며, 부툰(*Bu ston*, 1290-1364)의 『불교사』에 따르면, 자야바드라의 기타 저작⁴⁸⁾ 등도 역시 린첸닥에 의해 티벳

46) 이 두개의 비-바즈라야나 문헌의 저자를 동일한 인물로, SāNi의 저자를 한 두 세기 이후의 동명이인 Kambala라고 분석한 연구로 Daisy Sze Yui Cheung, “On Kambala’s *Navaslokī* and its Chinese translation”, *Conference Proceeding for the Production and Preservation of Buddhist Manuscripts in Central and East Asia* (Cambridge, forthcoming)이 있다.

47) 라바파는 티벳어로 *La ba pa*, *Grub chen la ba pa*, *Wa ba pa*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된다.

48) **Cakrasaṃvarasādhana*(P2191/D1476)와 **Śrīsaṃvaramaṇḍalopāyikā*(P2192/D1477); *Pañjikā*의 티벳역자 정보는 간기에서도 사료에서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역 되었다 전한다. 바바밧타의 여타 저작의 티벳어 번역 일화와 관련해 싸누펠 (gZhon nu dpal, 1392-1481)의 『청사』(*Deb ther sngon po*)에서는 소남갈첸(Se tsha bsod nams rgyal mtshan, =*Punyadhvaja. 11세기)이 문헌의 역경가로 언급된다. 그는 네팔에서 스승을 만나 헤바즈라와 나로파의 가르침을 배워 주석을 썼고, 이 기간 동안 여러 인도 주석들을 티벳어로 번역한 인물로 그려진다.⁴⁹⁾

이러한 티벳 사료의 정보를 종합해 보자면, 인도 찬술 문헌의 역경 사업이 티벳에서 재차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들 주석들도 1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티벳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자야바드라와 캄발라 사이의 선후 관계의 문제에 대해선 보다 나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다른 CaSa의 주석들과 보다 많은 티벳 사료에 근거해 차후 더 발전된 논의를 시도해 보겠다는 것으로 지금은 마무리해야 할 듯하다.

본고는 인도 밀교 삼바라 전통의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CaSa가 탄트라 경전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요기 니탄트라⁵⁰⁾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내는 CaSa가 SaBuSa에서는 볼 수 없었던 athāta⁵¹⁾라는 경전의 시작 문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근거해 이 문구를 포함한 CaSa 첫 계송의 반구(半句)에 집중된 주석가들 견해 사이의 동이(同異)를 집중해서 살펴보기 위해, 아직 전체적으로 편집, 번역되지 않았던 주석서들을 사용해 그 원문을 분석하였다. 자야바드라와 캄발라와 같은 주석가들은 CaSa의 가장 초기 주석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는 후대의 해석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바바밧타의 주석이 보여주듯이, 주석가들은 선대의 견해를 이어오면서도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를 부가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여기서 다른 문헌의 저자들이 불교 외의 사상적 견해를 유연하게 받아들 이면서도 기존 전통의 가치를 보존, 계승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켜 논의해 보

49) Roerich는 영역에서 관련 번역을 D.1415(*rGyud kyi rgyal po chen po dpal rdo rje mkha' 'gro shes bya ba'i rnam par bshad pa* [= *śrīvajraḍāki-nāma-mahātantravajrasvṛitti*] (P.2131))이라고 적고 있으나, 실제로 Bsod nams rgyal mtshan이 번역자로 기록된 번역 가운데 Bhavabhṭṭa의 것은 *Hevajra dpal dgyes pa'i rdo rje rnam bshad rnam par 'grel pa zhes bya ba* [= *śrīhevajrasya vyākhyāvivaraṇa-nāma*] (P.2312 D.1182)이다. George N. Roerich, *The Blue Annals*(New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9), p.395 참조.

았다. 이는 이 저자들이 불교뿐만이 아니라 인도 전통 일반에 박식했으며, 선교방편 측면의 유연성과 함께 범어 저술과 문법에 정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인도의 모든 종교 사상은 새로운 경전의 끊임없는 탄생과 전승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CaSa라는 새로운 탄트라도 또한 처음 교시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서 자리잡는 과정에서 이러한 독창적인 사상가들이 부재했다면, 지금처럼 다채로운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의적, 신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탄트라 전통의 성격이 대변하듯, 밀교 경전들은 단순히 경전만으로는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이는 문헌의 학문적 이해의 측면이든, 수행적 체험의 영역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밀교에서 스승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변함이 없듯이, 텍스트의 학문적 이해에 있어서도 그러한 스승들이 해설한 주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치 스승의 해설 없이 밀교적 가르침을 결코 이해할 수 없듯이, 주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탄트라 본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삼바라 전통의 주석가들도 저작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문을 해독해 낸다면 이러한 주석들이 밀교 경전의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자가 되어 줄 수 있다. 인도 찬술 전통이 배양한 사상가들의 학문적 사상적 자취는 그들의 저작을 꼼꼼히 읽어보는 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자료적 지평을 넓힌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원문을 제공하고 번역, 분석했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은 단지 기준에 없었던 자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번역, 분석되었던 원전 텍스트라고 할지라도 해당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ac* *ante correctionem*
- omit. 누락(omission)
- Ms./Mss. Manuscript/Manuscripts
- pc* *post correctionem*
- r* *recto*
- v* *verso*
- NGMPP Nepal-German Manuscript Preservation Project
- CaSa *Cakrasaṃvaratantra* ; 사본(Baroda Acc. 13290) ; [편집본] PANDEY, Janardan Shastri. 2002. *Śrītherukābhīdhānam Cakrasaṃvaratantram with the Vivṛti Commentary of Bhavabhaṭṭa*, 2vols, Rare Buddhist Texts Series 26, 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 Sarnath: Varanasi. ; GRAY, David. B. 2012. *The Cakrasaṃvara Tantra (The Discourse of Śrī Heruka), Editions of the Sanskrit and Tibetan Texts*, American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ñjikā* Jayabhadra의 *Cakrasaṃvaratantrapañjikā*; [사본] NGMPP B30-41 (A로 약칭); NGMPP B30-43 (B로 약칭); [편집본] SUGIKI, Tsunehiko ed. (杉木恒彦). 2006. 「チャクラサンヴァラタントラ」의 成立段について:- Jayabhadra 作 Śrīcakrasaṃvarapañjikā 校訂梵本」[On the making of Śrīcakrasaṃvaratantra : with a critical Sanskrit text of Jayabhadra's Śrīcakrasaṃvarapañjikā], 『智山学报』(*The Chisan Gakuho*) vol.50, 91-141.
- Vivṛti* Bhavabhaṭṭa의 *Cakrasaṃvaratantravivṛti* [편집본] PANDEY, Janardan Shastri. 2002 (CaSa 편집본 참조); [부분편집본] LI, Nan (李南). 2005 『《胜乐轮经》及其注疏解读 = Shengle lunjing jiqi zhushu jiedu, 李南校勘译注』, Beijing: 中国社会科学出版社 (China Society Science Publishing House); BANG, Junglan. 2019. The Opening Passages of Bhavabhaṭṭa's Commentary (Vivṛti) on the

- Cakrasaṃvaratantra, -Remarks on his elaboration of the preamble-, 『大正大学
綜合仏教研究所年報』 (*Annual of the Institute for Comprehensive Studies of
Buddhism*), no. 41.139-164. *본고에서 인용한 편집 원문은 Bang 2019에서 발췌.
- SaBuSa *Sarvabuddhasamāyogaḍākinijālaśamvara* [편집본] 2018 *Dhīh* (*Journal of
rare Buddhist texts*) 58, 141-201
- SāNi Kambala의 *Sādhananidhi* [사본] NGMPP A 31-20 (N로 약칭) Göttingen Xc
14-30 (G로 약칭) [부분편집본] SUGIKI Tsunehiko. 2016. “Kambala’s Sādhananidhi-
Critical Editions of the Sanskrit and Tibetan Texts of Chapters from 4 to 7”, 『開
智國際大學紀要』 (*Bulletin of Kaichi International University*) vol.15, 19-46.
- Hevajratāntra* [편집본] SNELGROVE, David L. 1959. *The Hevajra Tantra. A
Critical Study, Part I,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Part II, Sanskrit and
Tibetan Texts*, London Oriental Series 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Deb ther sngon po* [편집본] SCHIEFNER, Anton. 1868. “*Tāranāthae de Doctrinae
Buddhicae in India Propagatione Narratio. Contextum tibeticum e codicibus
petropolitanis edidit Antonius Schiefner*”, St. Petersburg: Academia Scientiarum
Petropolitana.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CHEUNG, Daisy Sze Yui. (forthcoming). “On Kambala’s *Navaślokī* and its Chinese translation”, *Conference Proceeding for the Production and Preservation of Buddhist Manuscripts in Central and East Asia* (Cambridge, August 2018).
- JUNG, Seung Suk (정승석). 2008. 「요가수트라 개시 선언의 해석학적 의미」 [“The Hermeneutic Meaning of the Opening Statement in *Yogasūtra*”], 『인도철학』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24, 51-81
- LEE, Youngjin (이영진). 2011. 「하리바드라의 *Abhisamayālaṅkāralokā*에 나타난 논서의 시작(Śāstrārambha)」 [“The Śāstrārambha(beginning of treaties) of *Abhisamayālaṅkāralokā*”], 『인도철학』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33, 169-201.

- _____. 2012. 『현관장엄론』 1-2계송에 대한 하리바드라의 부자연스러운 해석과 경전을 주석하는 방법론」[“Haribhadra’s forced interpretation with regard to the first two verses of Abhisamayālaṅkāraprajñāpāramitopadeśaśāstra and the methodology of glossing on Sūtras”], 『한국불교학』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62, 153-182
- SANDERSON, Alexis. 2009. “The Śaiva age : The Rise and Dominance of Śaivism During the Early Medieval Period”, *Genesis and Development of Tantrism*, ed. EINOŌ, Shingo. Tokyo: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41-349.
- SUGIKI, Tsunehiko. 2015. “Śamvara”, *Encyclopedia of Buddhism*, ed. JONATHAN A. Silk, Oskar von Hinüber, Vincent Eltschinger, Leiden: Brill, 360-366.
- Szántó, Péter-Dániel & Griffiths, Arlo. 2015. “Sarvabuddhasamāyogaḍākinījalaśamvara”, *Brill’s Encyclopedia of Buddhism*. ed. Jonathan A. Silk, Leiden: Brill.
- ROERICH, George. N. 1979. *The Blue Annals*, Delhi: Motilal Banarsidass.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Cakrasaṃvaratantra* - with analysis of early commentaries on its opening words

Bang, Junglan

Researcher / The Institute for Comprehensive Studies of Buddhism
Taisho University

The *Cakrasaṃvaratantra* (hereafter CaSa) is the earliest Tantra in the Saṃvara/Śaṃvara tradition of Vajrayāna. It shows the strong textual influence from the Sarvabuddhasamāyogaḍākinījālaśamva (hereafter SaBuSa). For example, the first three verses of CaSa could be regarded as an enlarged revision of the first stanza of SaBuSa. Neither tantra starts with the conventional opening words of Buddhist sūtras, viz. *evaṃ mayā śrutam*, etc. More precisely,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tantras. While SaBuSa does not have any specific opening words, CaSa begins with words, *athātaḥ* (*atha and ataḥ*). Therefore, it is not difficult to imagine that some people could have initially denied that these tantras are authoritative canons containing Buddha's teaching. As a result of such potential complications, the authors of the Saṃvara tradition may have attempted to establish the opening words of CaSa, *athātaḥ*, as a new paradigm for the commencement of the Buddha's teaching. However they were aware that *athātaḥ* was one of the Indian conventions for the beginning of scriptures or exegeses in non-Buddhist, Indian traditions. Consequently, the authors of the Saṃvara tradition had to develop explanations of the words, *athātaḥ*, based on Vajrayāna doctrine and the history of the transmission of their tantras. In considering this matter, this paper analyzes three early commentaries found in the extant Sanskrit texts, i.e., Jayabhadra's *Pañjikā*, Kambala's *Sādhananidhi*, and Bhavabhaṭṭa's *Vivṛti*, on first half-verse of CaSa.

Accordingly,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aims to show what kinds of interpretation were shared among these learned authors and their own distinct and creative expositions on the opening words of CaSa. Then, the last part of the paper will deal with some questions about dating of CaSa and the dating of commentators based upon Tibetan historical accounts.

Keywords

Cakrasaṃvaratantra, the preamble of Sūtra (sūtrāmbha), Jayabhadra, Bhavabhaṭṭa, Kambala

2020년 11월 13일 투고
2020년 12월 14일 심사완료
2020년 12월 20일 게재확정